原油価格 下落과 메이저의 動向

「歷史의 逆回転」으로까지 評価되는 原油価의 引下가 世界経済에 던져준 波及效果는 엄청난 것이었다. 그러나 過去 2次에 걸친 石油危機時에 暗躍하였던 메이저(国際石油資本)는 異常하게도 表面上으로는 沈默을 지키고 있다. 이에 最近 外紙에 실린 이와 関聯된 内容을 抜萃·要約하여 본다. □ 編輯者註 □

Ⅰ. 下流部門의 合理化로 復权 노려

「原油20달러時代」의 幕을 올린 것이 事実은 메이저였다는 것이 浮刻되고 있지만, 이제는 世界의 原油生産을 支配하던 過去의 気勢조차 없어져 버렸다.

하지만 메이저는 強大한 販売力을 武器로 하여 OPEC原油를 需給에 의하여 価格이 決定되는 市場으로 끌어 내 왔으며, 그 底力으로 새로운 情勢下에서 「메이저의 復权」을 노리고 있다.

原油価의 再引下説이 나돌고 있는 지금 메이저는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 動向은 各国의 産業界로서도 결코 無関하지가 않다.

셸은 北海原油의 代表油種인 플로타의 引受会社인 同時에 나이지리아의 단골去来先이기도 한데, 아직 2/4分期의 플로타의 価格에 관해서 BNOC(英国石油公社)에 同意를 하지 않고, 나이지리아原油를 購入코자 하여 北海原油価가 또 한차례 下落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셸의 태도는 日本의 大会社나 元売会社와 같이 싼 価格으로 原油를 購入코자 하는 立場에 서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背景에는「向後 10年間은 自由世界의 石油需要가 거의 増加되지 않고, 生産過剰이 将來 価格上昇의 制約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予見이 있다. (걸프의 제임스리会長).

生産은 安定을 이루고 있으므로 가능한 한, 값싼 原油를 購入, 精製, 販売하는 下流部門에 置重하는 戦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美国系 메이저인 텍사코는 올해에만도 美国의 精油工場을 近代化하기 위하여 5억달러를 投資할 것이다. 이미 유럽에서는 近代化를 마무리짓고 있으며, 昨年에는 美国内와 유럽, 캐나다에서 모두 6個의 旧式化된 非效率精油工場을 廃鎖, 売却했다.

世界最大의 메이저인 엑슨에서조차 850 個에 달하는 注油所의 廃鎖, 売却과 主力精油工場 의 하나를 日当 26만5천 배럴의 能力에서 10만 배럴로 減縮하는 等 大胆한 合理化방안을 내놓았다.

海外로의 進出이 늦어 競争力이 약한 걸프는 유럽에서 完全 撤収하고, 美国内에서 体制를 빈틈없이 確固하게 하려 하고 있으며, 昨年에만도 전체의 12%에 해당하는 약 7천명의 従業員을 一時解雇했다.

막강한 힘을 誇示하던 메이저가 오늘날이 정도까지 下流部門의 合理化에 没頭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이는 上流部門인 生産에서 急速히 支配力을 喪失하고, 발판으로서의 興味를 잃었기 때문에 새로운 収益源을 確保할 必要가 있기 때문이다.

엑슨등 7大메이저와 CFP(프랑스)를 합친 8社의 OPEC諸国에 대한 原油生産세어는 1973年엔 49.7%였지만, 81年에는 겨우 7.4%로 低下되어 버렸다.

이 숫자는 OPEC諸国에 原油生産의 支配力을

빼앗기고, 戰略轉換을 斷行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메이저의 現実을 나타내 주고 있긴 하지만, 메이저도 戰線縮小에만 急急해야 할 理由는 없다.

오히려 予想以上으로 長期的인 石油開発戰略을 착착 推進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表-1〉 메이저 및 CFP의 OPEC諸国에 있어서의 原油生産量

(上段은 생산량·천B/D, 下段( )은 세어, %)

	1981年	78年	73年
B P	123	400	1,866
	(0.5)	(1.3)	(6.0)
C F P	171	327	632
	(0.8)	(1.1)	(2.0)
엑 슨	90	1,116	3,511
	(0.4)	(3.7)	(11.3)
걸 프	113	118	1,716
	(0.5)	(0.4)	(5.5)
모 빌	138	504	1,086
	(0.6)	(1.7)	(3.5)
셸	223	351	1,968
	(1.0)	(1.2)	(6.4)
소 칼	364	1,360	2,232
	(1.6)	(4.6)	(7.2)
텍 사 코	443	1,435	2,410
	(2.0)	(4.8)	(7.8)
8 社 計	1,665	5,611	15,421
	(7.4)	(18.8)	(49.7)

엑슨은 지금까지 알라스카의 64개 鉱区 中 45개를 이미 試錐했으며, 모빌도 美本土에서의 原油開発에 全力을 集中하고 있다. 한편 유럽의 B.P, 셸도 北海와 알라스카에서의 새로운 開発에 着手했다.

그런데 각 메이저에 共通的인 것은 어느 쪽도 新鉱区가 OPEC以外의 곳에 있으며, 칸트리리스크(Country Risk)가 작은 곳을 選択하고 있다는 것이다. 生産過剰이 계속될 동안, 下流部門의 強化로 延命해 나가고 再次 潮流가 変化할 것으로 보이는 1990年代 以後에 OPEC諸国의 영향을 받지 않는 自営油田에서 다시 上流部門의 比重을 增加시켜 가는 것.

이러한 것이 메이저로서의 当然한 長期戰略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Ⅱ. 産油国의 背後操縦者로

런던OPEC総会以後, OPEC史上 最初의 原油価引下라는 事態에 한동안 조개처럼 입만 다물고 있던 메이저.

그 메이저가 조금씩 입을 열기 始作했다.

▽ 石油価格은 向後 1, 2 年間은 現在의 水準을 維持할 것이다. (BP)

▽ OPEC가 여름까지 追加引下를 피할 수 있다면 배럴당 29달러의 基準価格은 오랫동안 継続될 수 있을 것이다(소칼)

▽ 市場은 아직 流動的이고 展望이 불투명하다. 그러나 石油에도 市場原理가 作用하고 있다는 分明한 證據가 나타났다는 것이 73年以来 最大의 変化이다(엑슨).

美国企業, 특히 메이저의 行動原理는 利益追求에 있다고 하지만, 메이저가 極度의 販売不振에 直面해 있고, 現物市場 또한 계속 安定勢에 놓여 있는 가운데에서 消費国들은 石炭등의 代替에너지 開発에 迫車를 가하고 있으므로 여하간 企業存続을 위해서도 메이저는 産油国에 대하여 市場의 実勢에 따른 価格引下를 종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7大메이저의 復权이 이미 推進되고 있다면 메이저는 産油国의 背後操縦者로서의 役割을 遂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産油国과의 「運命共同体」임을 강하게 내세워 産油国에 価格引下를 強要할 것이다.

유럽 撤収戰略을 準備하면서 걸프는 쿠웨이트에, 스탠다드 오일 오브 인디애나가 이탈리아의 子会社를 사우디에 팔아 넘겼다.

그러면 이러한 메이저의 움직임은 과연 앞으로 더욱 強化될 것인가?

사우디政府와 같이 아람코를 構成하고 있는 엑슨, 텍사코, 모빌, 소칼의 메이저 4社는 昨年 약 70億달러의 결손을 사우디의 高価原油때문에 입었다고 한다. 그러나 「石油의 安定的인 供給보다 더 重要한 것은 없다」(모빌会長)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現在의 対사우디 姿勢를 変化시킬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 나머지 3社도 이와 같은 立場을 固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表－2〉主要産油国의 新原油価格

(FOB価格, 単位는 US$/배럴)

産油国	代表油種	新価格	引下幅
이란	이라니안라이트	28.00	3.20
이라크	키르쿠크	29.83	5.00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안라이트	29.00	5.00
쿠웨이트	쿠웨이트	27.30	5.00
오만	오만	29.00	5.00
카타르	카타르	29.49	5.00
아랍에미레이트	머반	29.56	5.00
베네수엘라	바카케로헤비	23.00	2.29
알제리	사하라	30.50	5.00
리비아	제티나	30.40	5.00
나이지리아	보니	30.00	5.50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29.53	5.00
소련	우랄	28.50	—
멕시코	이스무스	29.00	3.50
말레이지아	미리라이트	29.85	5.75
브루네이	라이트세리아	30.10	5.00
中共	大慶	28.70	5.00
영국	플로타	30.00	3.50
이집트	수에즈	27.50	—

註) 소련은 5월 1일부터 50센트, 이집트는 25센트 각각 引下하였다.

Ⅲ. 非系列会社의 重視 및 販売量의 拡大

메이저는 이제까지 사우디 아라비아를 中心으으로 하는 中東에서 값싼 原油를 생산, 世界의 市場에 供給하여 왔다.

그러나 72年의 테헤란協定以後 石油危機등을 거치면서 産油国의 事業参加 比率이 높아지고, 아람코를 構成하고 있는 메이저조차 오늘날에는 사우디政府로부터 生産, 販売, 価格政策등에서 어떠한 議論도 받고 있지 못하다고 할 정도로 中東에서의 그 地位가 後退하고 있으며, 中東과의 関係는 지금껏 維持는 되고 있으나 前과 같은 魅力은 存在하고 있지 않다.

그것보다는 新規開発을 中東以外의 新天地에서 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有望油田이 있고, 그 가까이 大市場이 있는 地区는 메이저에게 있어서 가장 魅力的으로 비치고 있다.

이러한 意味로 볼 때, 아라비안 라이트보다 더 軽質의 原油가 大量으로 生産可能한 中国海域은 인근에 日本, 韓国, 台湾의 거대한 市場을 안고 있을뿐만 아니라 有望한 鉱区를 지니고 있어서 代表的인 地域으로 認定되고 있다.

또한 過去에는 上流部門에서 高収益을 내고 下流部門에서는 現状維持만을 해 나가던 메이저도 原油価下落과 메이저의 勢力増大등으로 上流部門의 比重이 줄어든 反面, 下流部門을 収益源으로 삼게 되었다.

下流部門의 強化라 하여도 그 内容은 여러가지로서, 精製面의 強化와 販売面의 強化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精製面에서는 各国의 過剰設備가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메이저라 하여도 子会社의 設備増強등이 可能할리는 없고, 자연히 販売面의 強化에 重点을 두게 될 것이다.

다만 販売強化라 하여도 国内 注油所의 新·増設이 곤란한 상황인 現在는, 메이저는 우선 非系列会社를 重視하면서 販売量의 拡大를 노릴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메이저는 過去 2次에 걸친 石油危機時 系列石油会社以外의 非系列会社에 대하여는 原油의 供給을 中止, 削減하였던 일이 있으나, 石油供給이 安定을 이룰 것으로 생각되는 한 極東原油를 비싼 운임을 支払하고 欧美市場에서 販売하는 대신 非系列会社에 대한 販路를 넓히고, 供給量을 拡大하는 것이 유리한 方法일 것이다.

한편 系列会社에 대해서는 極東原油의 引受保證과 함께 販売量의 拡大를 強要할 것으로 보인다.

메이저의 極東重視—그것이 原油의 安定供給確保라는 面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불안한 面도 없지 않다. 「메이저는 利益이 있는 市場에는 豊富한 資金力으로 한번에 進出하는 暴発的인 実力을 아직 감추고 있다.」는 見解가 아직 뿌리깊이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본래의 메이저의 얼굴과 海外의 油田開発에 参與하여 大会社들과 衝突하고 있는 메이저의 얼굴들의 表情이 다채롭게 펼쳐질 것이다.

메이저의 動向을 어떻게 分析하고, 에너지戦略에 어떻게 살려 갈 것인가?

原油価의 下落은 単純히 朗報로서 기뻐하고만 있을 수 없는 점이 확실히 存在하고 있다. *